

희곡우체통 5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ANAK>을 희곡우체통의 6번째 낭송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예전에 유행했던 필리핀 노래의 제목을 상기시키는 제목인데, ‘나의 아이’라고 작가는 부제를 달았다. 우리나라에 국제결혼 때문에 온 필리핀 여인과 관련되는 이야기이다. 아니 작가는 이야기의 시작의 지점에서 ‘필리핀’이라는 먼 나라의 이름이 필요했을 것 같지만, 이내 이 작품이 그저 ‘여인’의 이야기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항시 억압받는 존재로서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작가는 하나의 이야기의 핵심을 둘러싼 인물들 각각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합하였다. 이 조합의 입체성은 작품이 기대고 있는 다소간 감상적인 감정을 상쇄해준다.

여주인공의 이름은 ‘메디’이다. 이 이름은 미디어를 환기시킨다. 남성의 폭력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인을 대변하는 이름으로 작가는 그리스 신화 속 미디어를 선택한 것이다. 신화 속에서는 광기의 마녀이지만, 폭력에 겁을 먹고, 억압의 줄에 묶인, 절망 속의 모든 여자들의 이름을 작가는 미디어 속에서 찾고 있다. 미디어가 살해하는 그 아이를, 죽일 것인지, 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우리사회가 선택해야 한다.

작가는 <ANAK>을 통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한다. 우리의 낭송공연이 그것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가 설정한 해설자가 단지 지문을 읽어주는 것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그런 무력한 해설자의 기능 속에서 들려주고 싶었던 것을 찾아보고자 한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조만수